

“ $_1$ 深—( $_1\phi$ )→( $_2$ 表→ $_1$ 表)—( $_2\phi$ )→ $_2$ 深”에서와 같은 형태적=( $\phi$ )적 “變形”이 아니라, 글자 그대로의 어휘적=(有)적 “變形”이다. 그런데 그 “變形(有)”를 “變形( $\phi$ )”로 誤認(=混同)하고 “變形(有)안에 “變形( $\phi$ )”와 “變形(有)”가 있다고 主張함을 말하는 것이다. 즉 이때 “變形(有)”=중간단계(effection)를 초월한 “表面”이 곧 통사론이라고 主張하는 것이다. 즉 어휘 안에 형태가 內在하는 것으로 보는 이 관점에서는 어휘만의 초월(=통사론)이 있을 뿐이다. 이에 대해서도 바로 위의 설명項 요 참조.

○이러한 어휘 위주의 초월관을 반영한 것이 다음의 그림이다 :

p. 45: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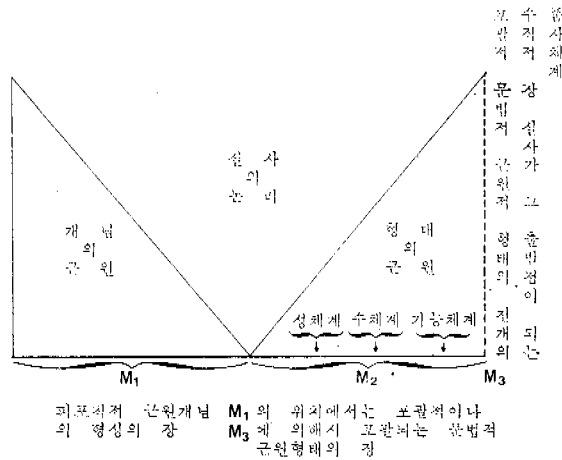


그림 14

위 그림은 형태 위주의 3)식 分析적 表記의 公式: “ $_1$ 深—( $_1\phi$ )→( $_2$ 表→ $_1$ 表)—( $_2\phi$ )→ $_2$ 深”의 포괄項( $_1$ 深/ $_2$ 深)/피 포괄項(表)을, “2)식 主張하는 表記”의 公式: “ $_1$ 深—( $_1$ 變)→( $_2$ 表· $_1$ 表→ $_1\#$ · $_2\#$ )—( $_2\#$ )→ $_2\#$ ”으로 誤認(=混同)했음을 認定하지 않고, 그것을 3)식 分析적 表記의 公式와 같은 포괄/피포괄의 共存位置라고 主張하는 表記이다. 즉 여기서의 포괄/피포괄은 사실상은 잠재(=表)/실현( $_1$ 深/ $_2$ 深)라는 主張이다. 이에 대해서는 앞 pp. 212-215의 부채꼴 그림의 비교項 및 바로 위(p. 228)의 설명項을 참조.

○통사론적 순서의 문제 :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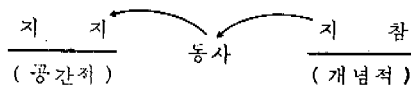


그림 59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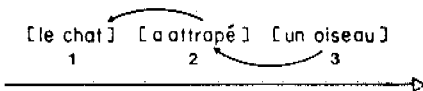


그림 60

p. 85: “주어—동사—목적어” 관계의 통사론적 순서의 그림(\*주의: 그림 59의 주어를 지지(공간적)이라 한 것은 주어는 공간적 개념으로서의 명사로서(시간적 개념으로서의) 동사를 지지하고 있음을 말하며, 목적어를 지참(개념적)이라 한 것은 동사를 개념적으로 보충하는 것이 목적어임을 말한다. 이것은 “主觀적 表記”가 갖는 어휘(=동사)위주의 어휘(=동사)와 형태(=주어/목적어)의 共存位置의 主張을 반영한다(\*앞의 〇 통사론의 정의와 관련된 모든 설명 및 그에 관한 정리부분 참조):

〇 위의 설명(\*앞 p. 226의 정리부분에서, “主張하는 表記”(=主觀적 表記)의 公式와 “認定하는 表記”(=客觀적 表記)의 公式의 비교에서, (非)서술어, (非)一致, (非)선택/(非)의도라는 개념을 사용한 설명을 참조):

〇 위의 “주(어)—동(사)—목(적어)” 관계는: 1) 主觀적 表記(=主張하는 表記)의 公式: “ ${}_1\text{深}-({}_1\text{變})\rightarrow({}_2\text{表} \cdot {}_1\text{表}\rightarrow{}_1\# \cdot {}_2\#)-({}_2\#)\rightarrow{}_2\#$ ”과, 2) 그와 모양이 같은 客觀적 表記(=認定하는 表記)의 公式로 정리된다. 이 때 主觀적 表記로서의 “주(=深)—동(=變)—목(=表)” 表記의 특징은, 3)식 형태적 分析적 表記의 公式: “주( ${}_1\text{深}$ )—( ${}_1\phi$ )→(동( ${}_2\text{表}$ )· ${}_1\text{동}({}_1\text{表})\rightarrow{}_1\text{동}({}_1\text{表})\cdot {}_2\text{동}({}_2\text{表})$ )—( ${}_2\phi$ )→목( ${}_2\text{深}$ )”에서 “주( ${}_1\text{深}$ )/목( ${}_2\text{深}$ )”이 “동(表)”을 一致시키거나 선택·의도하고 있는 것을 “동(表)”이 “주( ${}_1\text{深}$ )/목( ${}_2\text{深}$ )”을 一致시키거나 택선·의도하고 있는 것으로 誤認(=混同)하고 있음을 위 2)의 客觀적 表記(=認定하는 表記)에서 처럼 認定하지 않고, 그것이 마치 3)식 分析적 表記인 것으로 主張하는 것을 그 특징으로 하는 表記이다. 그러므로 이 表記에 있어서는 一致, 선택·의도라는 개념은 동사(=서술어)(먼저)가 중심이 되어 주어/목적어(=非서술어)(나중)을 一致시키거나 선택·의도한다는 의미에서의 一致, 선택의도라는 개념을 갖게 된다. 그것을 주어/목적어(=非서술어)(먼저)가 우선하여 동사(=서술어)(나중)를 一致시키거나 선택·의도한다고 主張하는 것이다. 그러므로 이때의 一致, 선택·의도는 글자 그대로의 어휘적(=통사론적)인 의미를 갖는다(앞 p. 207의 “모든 것은 통사론이다” 項 참조).

〇 이와 같이 순전히 통사론적(=어휘적) 의미만을 갖는 “주—동—목” 表記를, “주—동”과 “동—목”으로 둘로 가르는(=分析하는) 것도 역시 어휘적(=통사론적) 分析에 그친다. 그리고 이러한 分析에는 어려움이 따른다. VALIN은 이 어려움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:

pp. 85-86:

불어와 같이 격어미플 갖지 않는 언어의 경우, 같은 실사가 동사와의 관계에서 때로는 지지(=‘주어—동사’의 경우)의 기능을, 때로는 지참(=“동사—목적어”의 경우)의 기능을 가질 때, 이와 같은 통사론적 태도를 우리들의 설명의 테두리에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(…)하는 문제가 남는다.

의관적으로 구별 안되는 형태=0으로써 특징지어지는 지지(=주어) 및 지참(=목적어)을 그 거부관계로써 표시하는 해결방법을 택하였다. 이것이 G. Guillaume의 소위 “형태=0”적 격(cas synaptique)의 이론의 내용이다. 앞 그림 14에서 이 격이 차지하는 곳은, 실사의 형태근원(morphogénie)에서, 실사가 품사로 병합되기 이전 즉 초문법적 형태근원(morphogénie transgrammaticale)으로 들어가기 이전 단계이다(\*위에서 말한 상호거부관계는 화자의 입장에서는 선택<=주—동관계와 동—목관계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>이 된다: 필자 요약).

“형태=0”적 격(cas syntactique) 자체가, 원래 통사론적(=어휘적) 表記의 테두리 안에서 主張되는 상호거부적 형태인데, 그것을 마치 형태론적(=형태적) 表記의 테두리 안에서 分析적 3)식 表記에서의 상호거부적 형태라고 主張하는 것은, 主張으로 그칠 뿐, 그 “형태=0”적 격이라는 개념은, 바로 위에서와 같이, 동사(=서술어)(먼저)가 중심이 되어 주어/목적어(=非서술어)(나중)를 一致시키거나, 선택·의도한다는 의미에서의 一致, 선택·의도라는 개념을 나타낼에 불과하다. 이러한 통사론적(=어휘적) 의미에서의 一致, 선택·의도에 해당하는 것이 곧 위에 나온 바 “주—동—목” 表記의 “지지(=주)—동”, “동—지참(=목)”으로의 分析에서의 지지/지참이다. 즉 원래가 主觀적 表記(=主張하는 表記)인 “주—동—목”을 “지지(=주)—동”과 “동—지참(=목)”으로 分析하는 것은, “주—동—목”을 “선택<sub>1</sub>·의도<sub>1</sub>/一致<sub>1</sub>(=주)—동”과 “동—선택<sub>2</sub>·의도<sub>2</sub>/一致<sub>2</sub>(=목)”로 分析하는 것과 같다.

· 위와 마찬가지로 이유로, “지지(=주)—동—지참(=목)” 表記에 해당하는 “실사(=조동사+과거분사와 결합되기 이전의=본동사와 결합되는, 실사=지지)—조동사(=중심/核/매듭)—과거분사(=조동사의 개념적 보충요소=지참)”, “실사(=전치사+실사의 한정을 받기 이전의 실사=지지)—전치사(=중심/核/매듭)—실사(=전치사의 개념적 보충요소=지참)”, 그리고 실사(=관사와 결합되기 이전의, 관사+실사의 한정을 받기 이전의, 품사단계이전의 실사=지지)—관사(=중심/核/매듭)—실사(=관사와 결합된 이후의, 관사를 개념적으로 보충하는 실사=지참) 表記들도 모두, 그것들을 “지지—(중심/核/매듭)”, “(중심/核/매듭)—지참”으로 分析하는 것은, 통사론적(=의미적) 테두리 안에서, 즉 (중심/核/매듭)을 중심(=먼저)으로 한 그것과 지지/지참(=나중)과의 共存位置의 表記를 반영하는 것이다. 그것을 지지/지참(=먼저)을 중심으로 한 그것과 (중심/核/매듭)(=나중)과의 表記라고 主張하는 것이다. 참고로 VALIN(1981)의 그림을 아래에 소개한다(\*주의: 이들 그림은 “지지—(중심/核/매듭)”을 전제로 한 “(중심/核/매듭)—지참”의 그림임에 주의):

d. 44: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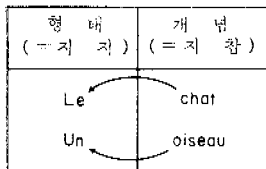


그림 13

p. 82: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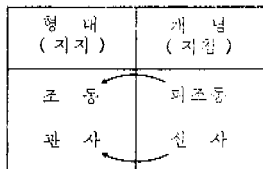


그림 58

p. 88: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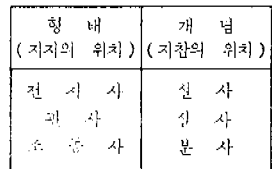


그림 61

· 위에 설명한 바로 부터, “주(=지지)—동(=중심/核/매듭)—목(=지참)” 表記의 순서의 문제는 곧 통사론적(=어휘적) 순서의 문제에 불과하다고 말할 수 있다. 왜냐 하면, 이 表記는 원래가 통사론적(=어휘적) 表記인데 그것을 형태론적(=형태적) 表記라고 主張하는 表記이기 때문이다. 즉 이 表記에는 오로지 통사론적(=어휘적) 순서만이 있는 表記이

다. 즉 앞의 VALIN의 예로 돌아가면 다음과 같은 통사론적(=어휘적) 순서 :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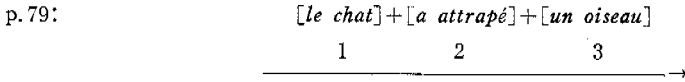


그림 51

만이 있는表記이며, 통사론 이전 단계의 순서 즉 형태론적 순서를 결한表記이다.

◦ “문장적 심리운동(=내재적 통사론=주)→논리적 공간(=초월적 통사론=동)→표현적 심리운동(=이중 초월적 통사론=목)”의表記의 문제 :

◦ 이것은 앞의 통사론적(=어휘적)表記로서의 “주(=지지)—동(=서술어/核/중심/메뉴)—목(=지참)”表記와 같은 문제에 속한다. 즉 “동”(=核=중심=매뉴=서술어)를 중심(=먼저)으로 한 그것과 주(=지지)/목(=지참)(=나중)의 共存位置의表記를, “주”(=지지)/“목”(=지참)을 중심(=먼저)으로 한 그것과 “동”(=서술어=중심=매뉴=核)(=나중)과의 共存位置의表記라고 主張하는 主觀적表記의 참모습을 들어내는 문제이다. 먼저 主張하는表記(=主觀적表記)로서의 VALIN의 그림을 소개하고, 다음에 그 그림을 변형시킨 客觀적表記를 제시하기로 한다 :

p. 47: 통합(le chat)의 (“내재→초월→이중초월”적)도식화(=주관적 표기화=主張하는 표기화) :

(순서)(1) :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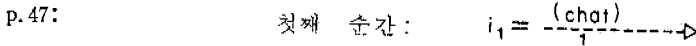


그림 15

- \* 주의 : 점선 화살표(→)는 내재적(=문장적 심리)운동을 표시함.
- \* 어휘(chat)가 출발점이 된 그것과 그에 내재하는 형태(ϕ)와의 共存位置를 나타냄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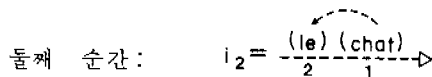


그림 16

- \* 주의 : 위와 같은 주의.
- \* 어휘(chat)와 그에 초월하는 형태(le)와의 共存位置를 나타냄.

p. 49: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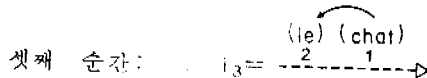


그림 17

- \* 주의 : 위와 같은 주의.
- \* 어휘(chat)와 그에 이중초월하는 형태(le)와의 共存位置를 나타냄.
- \* 주의 : 이상의 첫째/둘째/셋째 순간은, 이 주관적 표기(=主張하는 표기)의 (순서)(1)에 해당함.

(순서)(2):

pp. 49-51: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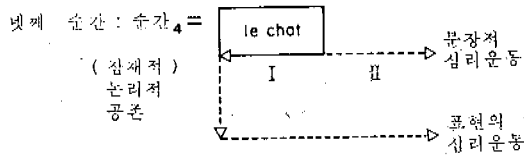


그림 18

\* 주의 : 위쪽 수평선의 실선(←) 부분은, 통합(le chat)을 출발점으로 한, 그것과 그에 내재하는 형태(=위쪽 수평선의 점선 : →)와의 **共存位置**의 일부(=출발점)를 나타냄; 수직의 점선(↓)은 위쪽 수평의 실선(←)과 점선(→)에 대하여 **초월성**을 나타냄; 아래쪽 수평의 점선(→)은 **이중초월성**을 나타냄.

\* 어휘(=통합 : le chat)가 출발점이 된, 그것과 그에 내재하는 형태(φ:est<있다>)와의 **共存位置**를 나타냄.

\* 이 넷째 순간은 (순서)(2)의 첫째(=잠재/내재 단계)에 해당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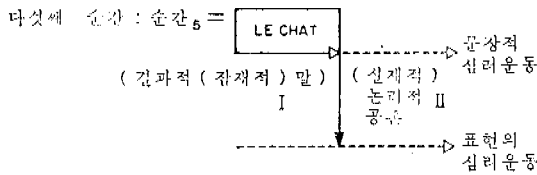


그림 19

\* 주의 : 위와 같은 주의(단, 수직의 실선(↓)이 중앙으로 이동하고, 위쪽 실선(→)의 방향이 바뀌었음)이 다름.

\* 어휘(=통합 : le chat)와 그에 초월하는 형태(有 : est<있다>)와의 **共存位置**를 나타냄.

\* 이 다섯째 순간은 (순서)(2)의 둘째(=실제/초월 단계)에 해당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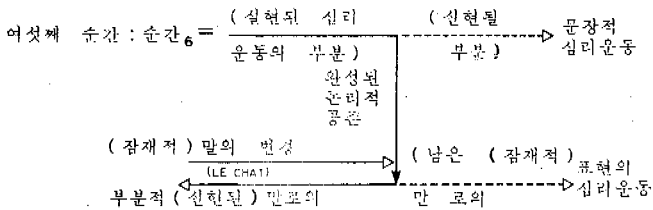


그림 20

\* 주의 : 위와 같은 주의 : 단, 위쪽 실선(→)이, 문장적 심리운동(=내재적 운동)으로 부터 아래쪽의 표현의 심리운동(=이중 초월적 운동)으로 이동하고 동시에 그 방향을 바꾸었음(←)이 다름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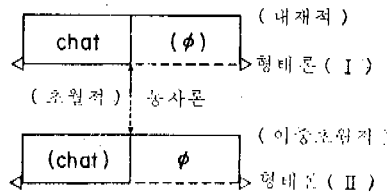
\* 위 두 그림의 순간의 **並置적**(=이중 초월적) **共存位置**를 나타냄.

\* 이 여섯째 순간은 (순서)(2)의 셋째(=완성/이중 초월) 단계에 해당함.

위 **主觀적 表記**(=主張하는 表記)의 성격, 즉 “내재→초월→이중 초월”적, 어휘(=통사론) 위주의, 그것과 형태(=형태론)와의 (準)異(逆)方向적 **共存位置**의 表記라는 성격을 살

리고 위 그림의 모양을 살려서, 통일된 그림으로 表記하면 아래와 같다(\*주의: 위 그림에서 (순서)(1)단계를 모두 (순서)(2)단계의 그림으로 흡수하고, (순서)(2)의 그림에는 없던 아래쪽 수평선에도 위쪽 수평선과 같은 사각형 두개를 그리고, 모든 화살 표시는 異(逆)方向(←……)으로 하되, 왼쪽 또는 위쪽을 실선(←; ↑) 즉 내재성으로 하고, 오른쪽 또는 밑 부분(……; ↓)을 점선 즉 초월성으로서 표시한다; (순서)(2)의 내재적 형태를 (est)〈있다〉로 잡고, 이중초월적 형태를 est〈이다〉로 잡은 것은, 명사적 형태로서의 관사(φ)/관사(le)에 비유될 수 있는 동사적 형태: (est)〈있다〉/est〈이다〉이기 때문이다):

(分析적임을 主張하는) 그림 14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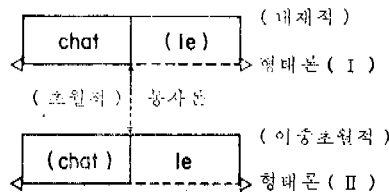


앞의 非分析적임을 認定하는 表記에서와 같이, 형태론(I)(上)/형태론(II)(下)의 空白(#)의 非分析性を 認定하지 않고, 그것(=#)이 分析적 表記에서와 같이 分析된 것이라고 主張하는 통사론(\*뒤 非分析적임을 認定하는 表記 및 分析적 表記 참조)(\*주의: 이 부분은 아래 그림 모두에 해당됨).

\* 주의: 괄호( )의 유/무는 어휘위주의 내재성/외재성에 해당함.

\* 앞 p.215의 (分析적임을 主張하는) 그림 3의 (먼저)<sub>1</sub> 및 p.221의 그림 13의 순서(1)의 첫째 참조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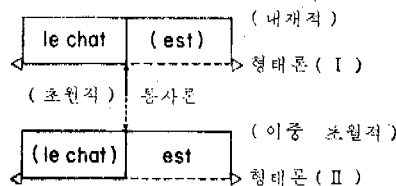
\* 형태론(I)/(II)가 내재적/(이중초월적)임에 주의; 分析적 表記에서의 (초월<sub>1</sub>적)/(초월<sub>2</sub>적)과 오 비교.



\* 주의: 위와 같은 주의.

\* 앞 p.215의 (分析적임을 主張하는) 그림 3의 (먼저)<sub>2</sub> 및 p.222의 그림 13의 순서(1)의 둘째 참조.

\* 위와 같은 주의.



\* 주의: 위와 같은 주의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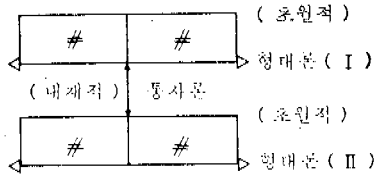
\* 앞 p.215의 (分析적임을 主張하는) 그림 3의 (나중)<sub>2</sub> 및 p.222의 그림 13의 순서(2) 참조.

\* 위와 같은 주의.

다음에는 위 主觀적 表記(=主張하는 表記)를, 分析적 客觀적 表記의 관점에서, 그 非分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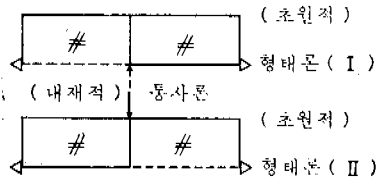
析性을 認定하는 表記로서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(\*주의 : 主觀적 表記의 (순서)(2)는 認定하는 表記의 (순서)(1)이 되고, (순서)(1)은 (순서)(2)가 된다. 그리고 (초원적)형태론(1)/(초원적)형태론(2)의 空白(#)은 그것이 非分析적 空白(#)으로 認定되고 있음을 나타낸다. 또 主觀적 表記의 모든 화살표시가 실선/점선으로 양분되어 있음에 반하여, 이 認定하는 表記는, 이 表記의 특징의 출발점으로서의 (순서)(1)(=모두 실선으로 표시)을 제외한 (순서)(2)에서는, 分析적 客觀적 表記에서와 같은 점선/실선의 異(逆)方向적 표시를 했음에 주의 ; (순서)(2)의 초원적 형태(I)((est<이다>)/초원적 형태(II)(est<있다>))의 설정은, 그것이 (순서)(1)의 초원적 형태(I)( $\phi$ )/초원적 형태(II)(le)와 직결된다고 인정되기 때문이다) :

(非分析적임을 認定하는) 그림 15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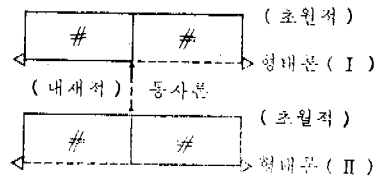
上/下の 형태론(I)/(II)의 空白(#)이 非分析的임을 認定하고, 따라서 어휘(=est<있다>)와 그에 內存하는 형태=est<이다>의 (準)異(逆)方向적 共存位置임을 認定한다는 의미에서의 (내재적)통사론.

\* 주의 : 앞 p.216의 (非分析임을 認定하는) 그림 8의 (먼저) 및 p.223의 (非分析임을 認定하는) 그림 12의 (순서)(2)의 첫째 및 둘째 참조.



上/下の 형태론(I)/(II)의 空白(#)이 非分析的임을 認定하고, 따라서 어휘(=chat<고양이>)와 그에 內存하는 형태= $\phi$ 의 (準)異(逆)方向적 共存位置임을 認定한다는 의미에서의 (내재적)통사론.

\* 주의 : 위 주의 사항과 같은 表記의 순서(I)의 첫째 참조 ; p.216의 그림 8의 (나중)<sub>1</sub> 및 p.223의 그림 12의 (순서)(2)의 첫째 참조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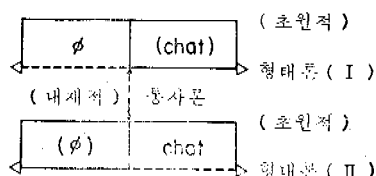


上/下の 형태론(I)/(II)의 空白(#)이 非分析的임을 認定하고, 따라서 어휘(=chat<고양이>)와 그에 內存하는 형태(=le<그>)의 (準)異(逆)方向적 共存位置임을 認定한다는 의미에서의 (내재적)통사론.

\* 주의 : 위 주의 사항과 같은 表記의 순서(I)의 둘째 참조 ; p.216의 그림 8의 (나중)<sub>2</sub> 및 p.223의 그림 12의 (순서)(2)의 둘째 참조.

끝으로 위 두表記 즉 主觀적表記(=主張하는表記)와 客觀적(=認定하는)表記의 기준이 되는 分析적 客觀적表記의 그림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: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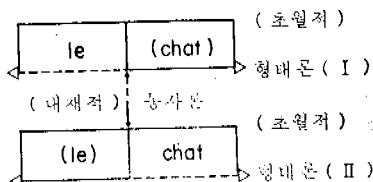
(分析的) 그림 16



上/下의 형태론(I)/(II)에 (의해서) 내재(포괄)하(되)는, 上(I)/下(II)의 並置的 共存位置로서의 (내재적)통사론(\*주의: 이 부분은 아래 그림 모두에 해당됨)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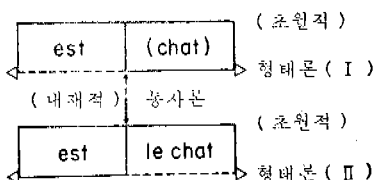
\* 주의: 괄호( )의 유/무는 형태위주의 내재성/외재성에 해당함.

\* 앞 p.215의 分析的 그림 4의 1(먼저) 및 p.223의 그림 9의 (순서)(1)의 첫째 참조.



\* 주의: 위와 같은 주의.

\* 앞 p.215의 分析적 그림 4의 2(먼저) 및 p.223의 그림 9의 (순서)(1)의 둘째 참조.



\* 주의: 위와 같은 주의.

\* 앞 p.215의 分析적 그림 4의 (나중) 및 p.224의 그림 9의 (순서)(2) 참조.

\* 보충 사항: 앞(p.176)의 위에서 2行(Temps et verbe...) 안에다: Gustave GUILLAUME, *Foundations for a science of language* (excerpts from the manuscripts translated by) Walter HIRTLE & John HEWSON, John Benjamins Publishing Co., Amsterdam/Philadelphia, 1984, p.51; pp.109-110 (=Principes de linguistique théorique de Gustave Guillaume (recueil de textes inédits préparé en collaboration sous la direction de R. VALIN), Québec, Presses de l'Université Laval/Paris, Klincksieck, 1973, p.93; pp.185-187) 참조, 불 보충함.



## 《Résumé》

## Linguistique de Position et la Syntaxe

PAK, Hyong-Dal

Contrairement à ce qui fonde le point de départ de la théorie *Psychomécanique du Langage* de Gustave GUILLAUME, i.e., la *position coexistentielle (bi-directionnel/hétérogone)* de «matière(=notion)—forme», mise dans l'ordre de 1 à 2, nous voudrions proposer l'ordre inverse de «forme—matière», pour les raisons suivantes:

- 1) la *forme* est par définition une entité fermée, limitée et analysée alors que la *matière* est celle ouverte, illimitée et comme tel non analysable;
- 2) c'est à partir de la *forme analysable* que l'on peut arriver à analyser la *matière* et non vice-versa.

En se fondant sur cette constatation bien simple, cet article vise à préciser les coordonnées de la théorie *psychomécanique du langage* dans le cadre unificateur suivant:

- 1) la théorie «forme—matière» que nous proposons d'appeler la *représentation analytique formelle objective* (=morphologique) et de représenter comme:  $q({}_1T \leftrightarrow {}_2T)$  ( $q$ =forme;  $({}_1T \leftrightarrow {}_2T)$ =matière);
- 2) le *corollaire* de la théorie 1), qui admet dans la théorie 3) ci-dessous, l'absence de la *représentation analytique formelle* (=morphologique) de la théorie 1) et qui peut se représenter comme:  $\#({}_1T \leftrightarrow {}_2T)$  ( $\#$ : l'absence de  $q$  (forme);  $({}_1T \leftrightarrow {}_2T)$ =matière);
- 3) la théorie «matière—forme» que nous proposons d'appeler la *représentation non analytique lexicale subjective* (=syntaxique) et qui insiste *subjectivement* sur son caractère *analytique formel objectif* (=morphologique) (=1) et confonde elle-même (=3) avec (1), au lieu d'admettre l'absence de (1). Sa représentation sera:  $T(q_1 \leftrightarrow q_2)$  ( $T$ =matière;  $(q_1 \leftrightarrow q_2)$ =forme).

Si la théorie *psychomécanique* demeure toujours dans (3), elle va continuer son analyse à l'infini dans le cadre *syntaxique* (=lexical) seulement; si elle vise à atteindre à la *théorie morphologique* (=1), laquelle est son but, elle doit réévaluer ses résultats obtenus de telle façon qu'ils soient conformes à la *théorie morphologique*(1).